



말똥가리.



배암차즈기.



이나무 열매.



이나무 수피.

# 봉황 깃드는 호젓한 대나무 숲길 걷노라면...

봉황은 일찍이 중국에서 용, 기린, 거북 등과 함께 사령(四靈)의 하나로 발돋워져 왔다. 삼국시대에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로 들어온 후 고구려 금동보살상, 백제의 금동용봉황, 신라의 봉황 암막새 등 많은 유물을 남겼다. 신라 말에 풍수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산 이름과 절 이름에도 봉황이 깃들기 시작했다. 선문구산 가운데 하나인 곡성 태안사(泰安寺)도 봉황의 절집이다.

태안사는 신라 경덕왕 때 초창되었지만, 역사적인 무게를 갖게 된 것은 창건 100년이 지나서 해철(海徹) 적인(寂忍) 선사가 이곳에 선문구산 동리산파를 열면서부터이다. 그 후 도선(道詵)과 여(如) 선사가 법을 이었고, 고려 태조 때 광자(廣慈) 대사가 크게 중창하였다.

태안사가 봉황의 절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태안사가 앉은 산 이름이 봉황이 깃든다는 오동나무 숲, '동리산(桐裏山)'이다. 그 후에 바위 '봉두산(鳳頭山)'이라는 지명은 봉황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그 밖에 '봉정(鳳亭)', '유봉(留鳳)', '동계(桐溪)' 등의 이름도 봉황을 지칭하고 있다. 태안사가 자리한 죽곡면(竹谷面) 지명에도 봉황이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대나무 '죽(竹)' 자가 들어가 있다. 일찍이 태안사의 형국을 봉황이 동지로 날아든다는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으로 보고, 일주문을 '봉황문(鳳凰門)'이라 이름 짓고, 암자 이름을 '봉서암(鳳瑞庵)'이라 했다.

태안사 생태탐방 구간은 들머리에서 능파각에 이르는 숲길 구간, 능파각에서 일주문을 지나 경내와 천불전 전체를 아우르는 구간, 2개의 암자를 포함한 주변 구간 등으로 나누면 간단명료해진다.

들머리 사하촌인 견모마을에서 큰 절까지는 2km 조금 못 미치는 거리이다. 도중에 인적이 전혀 없는 호젓한 숲길이다. 이 숲길은 눈맛이 부드럽다. 산자락의 모양새에 따라 물결이고 부드럽고,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길결이도 유순하고, 주변의 식생도 눈에 익은 활엽수들이라 눈에 그윽하고 편하다.

키 큰 나무들은 참나무류를 비롯해 너티나무, 고로쇠나무, 팽나무, 검쟁나무, 개암나무, 들메나무 등이 자라고, 인공 식재된 나무로는 삼나무와 편백나무들이 보인다. 중간키 나무들은 당단풍나무, 감태나무, 가막살나무, 털팽나무, 생강나무, 비록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보인다.

계울을 이리저리 건너며 오르는 산길은 비포장이라 무심코 걸음이 그만이다. 동계전에 걸린 4개의

다리를 건너면 정자를 곁한 능파각(凌波閣)이 나온다. 건축 양식은 누각이지만, 본래의 용도는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능파(凌波)'란 물결을 가볍게 건너가는 의미이다. 번뇌망상을 파도에 비유하여 마음공부로서 능히 잠재우라는 옛 스님들의 간곡한 당부가 깃들어 있다.

능파각에서 일주문까지는 돌을 박은 시멘트길이라 오솔길의 운치를 반감시키고 있다. 오솔길 좌우로 우람한 전나무들이 선방 수좌처럼 서 있다. 수령이 80년은 족히 되어 보인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이나무, 검노린재나무, 노린재나무, 산들배나무, 삼나무, 편백나무도 친구하며 서 있다. 등걸 좋은 느티나무로 세운 일주문의 이름은 봉황문이다. 건축 양식은 일주문이지만, 경내에 너무 인접해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천왕문이나 금강문이다. 일부 고찰에서는 천왕문을 봉황문이라고도 하니 더욱 그렇다.

봉황문 오른쪽 부도전에 자리한 광자 선사 부도는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으로, 하대석 각면에 당초문(唐草紋)이 새겨져 있다.

태안사의 가람배치는 산간의 지형을 적절히 이용해 높고 낮은 석축을 쌓아 공간을 구획 지었다. 가람배치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통일감을 잃은 듯하다. 묘사적인 해회당(海會堂)은 모자형 중층 건물로, 고색이 제법 찬연한 옛 건물이다. 보살님들이 꽃감을 깎아 마루에 널어놓아 보는 이의 마음을 정겹게 한다.

적인 선사의 부도전 앞에 배암굴이 있다. 문이 낮아서 절로 허리를 숙이게 하는 배암의 문이다. 좌우의 기둥들도 문을 들어서서 이들에게 허리를 꺾어서 한량없는 하심(下心)을 보여준다. 부재들이 상해서 최근에 새로 지었는데, 예전 문에 비해 고자세이다. 적인 선사 생전에 문성왕이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리산중에 금살(縲紲) 당간을 사방에 세웠다고 하니 요즘의 생병보 생대보전의 기치가 아니었나 싶다.

겨울철 태안사 주변에서 관찰되는 초본으로는 배암차즈기가 첫손에 꼽힌다. 배암차즈기는 다소 습한 곳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잎사귀에는 잔주름이 많고, 양면에 잔털이 드물게 있으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내한성이 강해서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있다. '곰보배추'라는 속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호흡기 질환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태안사 주변 숲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당국이 숲가꾸기 작업을 벌여서 숲의 모습이 많



## 호흡기 약재로 쓰는 배암차즈기 겨울에도 관찰 용이 방치된 태안사 숲길 최근 '숲가꾸기 작업'으로 정리

결쳐놓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경내의 조경수는 매우 다양하다. 남쪽이라 동백, 광나무, 팽나무, 목서, 피라칸타 같은 상록난대수종이 보인다. 적인 선사 부도전에 있는 동백은 수관이 넓어서 다른 동백과는 격이 다르다. 대웅전-삼성각-연화실을 잇는 산자락에 조성한 차밭도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로 훌륭하다.

겨울철 태안사 주변에서 관찰되는 초본으로는 배암차즈기가 첫손에 꼽힌다. 배암차즈기는 다소 습한 곳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잎사귀에는 잔주름이 많고, 양면에 잔털이 드물게 있으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내한성이 강해서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있다. '곰보배추'라는 속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호흡기 질환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태안사 주변 숲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당국이 숲가꾸기 작업을 벌여서 숲의 모습이 많

이 달라졌다. 나무 줄기에 여러 색깔로 표지가 되어 있다. 붉은 표지는 벌목 대상목, 흰색 표지는 관찰목, 노란 표지는 보존목을 나타낸다. 주변에 어지럽던 대수도 많이 정리되었다. 봉서암에서 성기암까지 입도 같은 흩갈이 이어져 있다. 성기암에서 봉두암으로 오르는 외줄길 등산로가 나 있다. 두 암자와 천불전을 아우르는 제3 구간 역시 서어나무-신갈나무 군락이 보이는 가운데 이나무, 노각나무, 나도밤나무, 비록나무, 사람나무, 서어나무, 산뽕나무, 팽나무 등등 온대활엽수가 주류를 이룬다.

이나무는 내장산 남쪽으로 자라는 키 큰 활엽수이다. 나무껍질은 밝은 황갈색을 띠고, 자갈한 피복(皮膜)이 수평으로 발달한다. 봄에 꽃이 핀 다음 가을에 붉은 열매가 작은 포도송이처럼 긴 자루에 드리워져 달린다. 남도 사찰에서 관상용으로 심을 만한 수종이다.

옛 글에 '봉황새는 오동나무에 깃들고, 죽실을 먹고 산대(鳳凰不啄粟 所食唯粟)'고 했는데, 태안사는

봉황의 절집답게 주변에 대나무가 많다. 죽실은 활기(活性)가 있어서 곤궁할 때는 딱이던 밥을 해 먹었다고 한다. 실제로 동학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는데, 마침 하늘이 도와서 조릿대에 꽃이 피고 죽실이 열려서 아사를 면했다는 기록이 있다. 절에서는 이 죽실을 어디에 썼는지는 기록이 없다.

적인 선사 비문에 '소나무 숲이 짙고 울창하여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스하므로 삼한의 승지(勝地)'라는 언급이 있지만, 지금 태안사 주변 소나무는 여러 번 천이를 거쳐서 바닥을 칠 정도로 약세에 있다. 몸집 좋은 노송들도 활엽수림에 기대 겨우 결방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어나무 군락에서는 여러 그루가 빗자루병에 걸린 듯하다. 몇 그루 산뽕나무에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로 대추나무에서 많이 나타나는 빗자루병은 마이코플라스마라고하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되는데, 잔가지가 빗자루처럼 갈라져 많이 생기면서 1-2년 사이에 나무가 고사하는 병이다.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외과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나무줄기에 이따금 팽이버섯이 돋아나 있다. 버섯은 대체로 겨울에 활동을 중지하지만, 기후가 따뜻한 곳에서는 생육을 계속한다. '팽나무버섯'이라고도 불리는 팽이버섯도 늦가을에서 이른 봄에 걸쳐 각종 활엽수의 고목에서 무리를 지어 자란다. 크기는 작지만 특성이 없고 맛이 좋아 산중에서 일찍이 식용을 해왔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팽이버섯은 텃밭을 이용하여 병에서 키운 것이다.

말똥가리 한 마리가 상송기류를 타고 머리 위를 빙빙 돌리다 나무가지에 내려앉아 사냥감을 찾고 있다. 말똥가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보이는 텃새이지만, 특히 겨울철에 많이 보이는 것은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개개는 북쪽에서 내려온 월새 새 말똥가리도 있다. 말똥가리는 숲가꾸기 작업이 연하고, 비행할 때 날개 아랫면의 암갈색 점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태안사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로는 박새, 쇠박새, 진박새, 곤솔박이 등 박새류와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등 딱따구리류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직박구리, 어치, 노랑턱멧새, 딱새, 까치, 꿩, 물떼까지 등의 텃새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2일개강

##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을 가진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2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원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당론	·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 · 이경배(총남대 교수) · 김호키(동국대교수) · 윤영수(문화재단연구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환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중석(금강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법아사상 · 회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영구반·주간반·통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8년 1월 1일~ 2008년 1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경구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

####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8년 2월 2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구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부산: 부다가이서점 051) 865-4383 · 대구: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지선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인삼마켓

www.insammaket.com

귀하고 고마운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취급품목 : 홍삼액, 홍삼정, 홍삼편, 인삼, 홍삼청국장, 캔디, 젤리, 분말

#### 홍삼생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gin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갈것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한다. 즉 인삼껍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당질조직이 존재하는데 홍삼은 이와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하다. 이런 홍삼을 액기스 추출과정에 90°C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은색을 띠는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풍기인삼은 아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희 **풍기정품인삼제조**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FAX 054)638-2177